

# 데스크 시각

김우성



현대차의 올 임단협이 무분규로 타결되면서 울산지역은 잔칫집 분위기라는 소식이다. 14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무분규 환영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주변 음식점들이 자진해서 음식값을 할인하는가 하면 각급 기관단체들의 환영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 울산 '잔칫집' 분위기 무얼 말하나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영대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참여 고사로 취소되긴 했으나 주최측은 기자회견으로 대체, 현대차가 더 이상 파업하지 않고 세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과 울산이 노사분규 없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 무파업 타결, 현대차에 박수

주변 400여 음식점들도 지난 7일부터 보통만큼 음식값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협력업체들도 환영성명과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하며 지역발전은 다짐하는 상황이다. 개인택시조합 회원들도 "현대차 홍보맨

이 되겠다"며 싱글벙글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웬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더 문제라는 생각이 앞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지역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얼마나 몸서리칠

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가 10년 전부터 세계 최고라는 일본 도요타를 모방해 왔지만 파업으로 도요타는 물론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울들어서도 연초 성과급 지급 마찰,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으로 이미 3천3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혔다.

이런 협상도 이면은 뜯어보면 회사측의 대폭 양보로 노조원 1인당 800만원 이상, 전체 약 3천9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이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도요타 등 경쟁업체에

비해 생산성과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고임금 구조 심화로 가격이 비싸지면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은 뻔한 이치다. '글로벌 넘버원' 전략에 치명타를 입게 될도 물론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역의 환경 분위기에 힘입어 만족해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심어린 고민을 할 때다. 노사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실제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노사문제에 따라 명멸을 함께 했다. 1950년대 세계 2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영국에서 토종 자동차 기업이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멸했다. 미국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추락, 제너럴모터스의 위기 등도 모두 노사불안이 원인이었다.

이런 회사들과 달리 오늘날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선 일본 도요타의 성공비결을 보라. 바로 노사평화에 그 키가 있질 않았는가.

### 국민사랑 받을 마인드 가질때

때마침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회장은 법인 판결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진행, 한국 자동차산업 세계 1위 도약이라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현대차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단순히 현대차 노조원들의 것이거나 현대차 임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환영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울산시민들만의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모든 국민의 것인데 틀림없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무파업 타결을 계기로 국가 성장동력 가꿔는 '명분없는 파업'과 남이 됐으면 한다. 임금구조 개선, 기술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된 마인드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한 노력을 거듭할 때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은 절로 따르게 되는 법이다.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시설

## 기상이변 급증 철저한 재난대책 세워야

태풍 '나리'가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전남지역에서만 5명이 사망하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4천354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의 피해도 커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추석과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민들이 안타깝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휩쓸고 간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의 재난대책은 여전히 피해를 본 뒤 허겁지겁 복구에 집중하는 고층 승계 등을 요구하며 79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상호중공업 노사는 그동안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점거농성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와는 무관한 정치파업까지 벌어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회사측도 조합원 해고 등 강경 입장을 보여 왔다.

러는 뚜렷한 사전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다.

이번 태풍 '나리'의 경우 사전대비가 부족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60mm 이상 쏟아진 '물 폭탄'을 감당하지 못한 배수펌프장과 모래와 진흙 등으로 막 막힌 하수관, 제때 개방하지 못한 수문 등 재난 대비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데도 재해에 대한 불감증과 총체적 무방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재난대책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올해 방재예산 2조여원 가운데 예방 투자액은 겨우 1천942억원으로 10%도 안 된다. 이처럼 뒷북행정은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상이변에 맞는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 보강과 재난 시 위기 대응체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 현대삼호重 무분규 협상 타결 환영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올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18일 노사 양측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76.2%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분규없이 임단협에 합의한 것은 1992년 본격 노동 운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무분규 타결은 노사가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5년동안 파업일수가 424일에 달할 만큼 잦은 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1999년에는 고층 승계 등을 요구하며 79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그동안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점거농성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와는 무관한 정치파업까지 벌어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회사측도 조합원 해고 등 강경 입장을 보여 왔다.

올 임단협이 분규없이 타결된 배경에

는 온건한 노조 지도부의 태생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선출된 새 집행부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과거의 강경 투쟁방식에서 벗어난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회사측도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타결 의지를 보였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무분규 협상 타결을 민생 분야의 약속을 끊고 새로운 노사 상생의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파업 민생주의로는 호소 조소하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이번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이 회사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자 서남권 산업평화를 다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 無等鼓

지난 16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전에 나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열광적 응원 모습은 경이로웠다. 그는 경기중 공이 아닌 상대선수의 가슴을 '해당'해버린 덕분에 3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은 뒤, 근신하고 있어야 할 기간에 자신의 집을 매춘부까지 불러들여 난잡한 행위를 벌이다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내남자의 여자'가 안방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불륜이 후반부에 드러나는 여는 드라마와 달리, 첫회부터 여자 주인공이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남편과 과감한 애정행각을 벌이다 다음회에 이 사건이 들뜬다. 이 드라마의 메인 트림은 40대 불륜 당사자들의 당당함, 혹은 자신감이었는데 이를 부러워하는 부류도 있었다.

## 바람 사랑 꿈



그것도 영국 최고의 모델이자 웨스(WAGs: 영국축구선수들의 부인과 여자친구)의 여왕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를 갖춘 그의 애인 켈마 옛킨슨을 낚고 벌인 스캔들이었기에 격정됐었다. 하지만 이날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얼굴은 흡입 하나 없었다.

요즘 온통 장안의 화제는 변안군씨와 신정아씨 얘기다. 신씨의 누드사진까지 터지면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듯 남자를 저녁 술자리에 최고의 안주로 등장하고 있다. 숙연은 필부들은 부러움에 침을 삼키면서 일탈을 꿈꾸기도 할 것이다.

경기후 그는 한 술 더 떴다. 영국 잡지와 인터뷰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내 이 상황이다. 아직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추파를 던졌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관계는 위태로워지고 둘다 사라지면 그녀도 조용히 사라진다. 몇개월전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그러나 현실에서 15살, 또는 20살 이상의 물리적인 차이가 나는 남녀의 결합은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힘과 재력(권력)이 있을때만이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관계는 위태로워지고 둘다 사라지면 그녀도 조용히 사라진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 기고

김병갑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온 국민이 흐르고 향기도 나는 최고급 '호텔형'의 한마당 큰 잔치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손길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체육시설 정비에 말할 것도 없고 도로와 숙박·요식업소를 단장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광산구 역시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단 순히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만이 아니라 광산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광산구는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송정리 역 광장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이 흐르고 향기도 나는 최고급 '호텔형'으로 바꿨다.

청사 1층의 남녀 화장실 2곳을 대상으로 타일, 전기시설, 좌변기 및 소변기, 출입문 및 창문 교체, 비데 설치 등 전면적인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 우리 구는 민원인 및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연차적으로 2~7층의 직원 화장실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계적인 유명 미술가들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메틀리카 갤러리를 민원실과 청사 주요 공간에 설치했다. '명화 메틀리카'는 세계 유수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오리지널 미술작품

## '다시 찾고 싶은 광산'을 위하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구민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일회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일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진문화 시민운동, 깨끗한 도시 가꾸기 운동, 교통·거리 질서 지키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3대 운동을 한데 묶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친절마인드·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5S(Stand up(일어서서 손님맞이), See(바라보며 인사하기), Smile(웃으며 주문받기), Speed(신속하고 친절 서비스), Satisfaction(고객감동 만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우수 업소를 포상하고 있다.

구청사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민원인 화장실을 카페같이 아늑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클래식 음악

의 데이터를 스페셜 페이퍼에 제작해 원색의 이미지로 인쇄한 재현 미술품을 뜻한다. 현재 고초, 모네, 칸딘스키, 다빈치, 파카소, 사갈, 르노아르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과 이중섭 등 국내 유명 작가 작품 60여점이 전시돼 있다.

이들 명화들은 3개월 단위로 교체되며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도 부착돼 있다. 이로 인해 딱딱한 관광서 이미지까지 사라져 광활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세계 명화의 감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운동, 아름다운 환경 조성 등에 쏟고 있는 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내리면 '다시 찾고 싶은 광산'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광산구 행정관리본부장>

## 추석 명절 소외 받는 사람 없게 이웃 돌아보는 기회로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다. 나보다 어려운 곳을 한번쯤 되돌아볼 때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종교적, 도덕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목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선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현대인의 사회복지는 가진 것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재화나 재물만을 한정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정의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는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훌륭한 정감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선도적인 자세와 정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추석에도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 하나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보살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승일·광주시 남구 월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 은펜클럽

박상하



조만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위원난관과 함께 사학법 전문이 제정될 예정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법 개정은 결국 정치적 야합으로 온 국민의 열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이제는 기억마저도 희미해지고 모두가 대선의 계절에 심취해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개악된 사학법에 근거하면 현재 임시시사가 파견 중이거나 분규가 진행되는 사학으로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임시시사를 선임하거나 해임 또는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교사 대표까지 배제하였다. 이는 15년 이상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대학교수도 포함하면서 교사를 제외했다는 것은 전교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입법 예고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은 학교구성원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적인 절차로만 규정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분규이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당사자 우선주의가 실력적 있게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사학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나 청문권은 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미리 쓴 편지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부가 수용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비리나 분규사학들은 이들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결정을 내리는 위원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고, 임기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위원의 자격기준이다. 대부분 관 검사 변호사 및 대학 총장 학장 등 지도층인사로 각 분야의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막아 놓았다.

대법원장이 파면에 가까운 5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국가 기관 구성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사법부가 보수 기득권 세력의 총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교육의 공급주체인 초중등

도시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개방이사회도 사실상 포기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청취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시시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보수 기득권층의 개입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고, 비리도 쫓겨났던 구 재단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되려면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윤리적인 책임감의 소유자가 가장 큰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익성에 철저히 입각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추천권자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공개된 인물 풀을 통해 정말로 국민들이 검증하고 공감하는 인사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 갖추기 위원회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랄뿐이다.

<나주대 교수·2007년 1월 수성자>

은펜클럽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초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교원 정년, 사립학교 교장들에게도 적용해야

전국 초·중·고교의 정년을 넘긴 교장들이 91명이나 되며 70대 이상 고령의 교장들도 4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교장으로 47년간 근무하고 85세의 교장도 재직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리니 사학들이 죽벌제나 특별경영으로 불리고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사학에서도 공립학교처럼 만 62

세가 되면 설립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퇴임시키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2세를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설립주체가 다르다고 하여 정년이 무시되고 수십년간 독재교장이 발생하게 하는가.

정년을 넘겨준 공사립 어느 교원이든 퇴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